

CMP 공정에서 Slurry Particle과 Wafer 표면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Slurry Particle Cleaning in CMP Process

한양대학교 금속재료공학과 이상호, 김형균, 박진구

1. 서론

최근 반도체 소자의 고집적도 및 다층 배선화가 이루어지면서 소자의 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염 물질의 제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도체 공정 중 특히 CMP(화학적 기계적 연마)공정은 다층 배선화를 위한 필수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의 성격상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제거가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왔으나 최근들어 Double-sided Scrubbing과 같은 기술의 등장으로 오염 물질의 세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이들 오염 물질의 제거 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연구는 상당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염 물질들과 웨이퍼 간의 부착 및 제거 기구를 이해하고자 Zeta-potential을 측정하여, CMP공정에서의 주된 오염물질인 Slurry Particle과 웨이퍼 간의 Interaction force를 계산하고, 이를 통하여 Slurry Particle의 웨이퍼에 대한 제거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Oxide CMP와 Metal CMP에서 각각 쓰이고 있는 Slurry Particle과 Si, SiO₂ 웨이퍼에 대한 Zeta-potential을 pH와 Ionic Strength의 변화에 따라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Slurry Particle의 경우 초순 수수 Base 용액에 Particle을 Suspension시킨 후, Ionic Strength를 조절하고 마지막으로 산성 및 염기성 시약을 이용하여 용액의 pH를 조절하였으며 농도 변화에 대한 Zeta-potential 값의 변화도 고려하였다. 그리고 웨이퍼는 세정한 직후와 세정후 시간이 경과했을 경우로 나누어 Contamination의 영향을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Particle과 웨이퍼 모두 pH가 증가함에 따라 Zeta-potential의 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Fumed silica와 알루미나를 같은 Ionic Strength에서 측정했을 때, 알루미나 파티클이 Fumed silica보다 기울기가 급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pH의 변화에 따른 Zeta-potential 값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남을 보여준다. 한편, 세정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SiO₂ 웨이퍼의 Zeta-potential은 Fumed silica와 거의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CMP공정에서의 Slurry의 pH조건이 Metal CMP의 경우 2 - 3, Oxide CMP가 10 - 11 정도임을 감안할 때, SiO₂ 웨이퍼와 Fumed silica가 실제 CMP공정의 pH 범위에서 같은 부호이면서도 비교적 절대값이 상대적으로 큰 Zeta-potential 값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조건에서 SiO₂ 웨이퍼에 Fumed silica가 부착되었을 경우 잘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